

배심원 "무죄" 재판부 "유죄"

광주·전남 국민참여재판 이후 첫 엇갈린 판결

광주지법 "배심원 판결 구속력 없고 권고 효력만"

지난해 광주·전남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배심원 판결의 구속력 없다는 점에서 배심원 판결의 구속력 여부 등 향후 제도 정착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1일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여·37)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한 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산후 우울증 등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해 김씨를 집행유예 조건으로 석방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앞서 진행된 배심원단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

전남에서 지난 2년간 진행된 11건의 참여재판 가운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평·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배심원단 9명은 김씨가 자식을 살해하게 된 동기와 산후 우울증의 심각성, 심신미약 상태 여부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개심리를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했다.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은 김씨의 범행이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 이뤄졌고, 자신이 없으면 아이가 가장 불쌍해질 것을 우려해 이른바 '이타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정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도 '김씨가 중증 우울증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와 김씨가 우울증에 빠져 있던 과정 등을 역설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김씨가 모친 사망 이후 12년간 파킨슨병을 앓아온 부친을 여수의 한

섬에서 간혹해온 점과 지난 2002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20여일 만에 잃은 점 등도 배심원들의 '온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6월 23일 여수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 A군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월 초 A군을 낳았으나 범행 전 2개월간 산후 우울증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6월 초 퇴원했으나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인 임선숙 변호사는 "재판부와 배심원 간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검찰의 '치료감호' 구형에 대한 판단은 일치했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참여재판 제도의 정착에 중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2012년 이후 배심원단의 판결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할지 등 입법논의가 이뤄질 텐데 이번 판결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市 '합동 워크숍' 아이디어 백출

소의 청소년 '대안교육센터' 설립

'도로 다이어트' 자전거 도로 확충

市 "시정 적극 반영"

"학교 부적응으로 정규 교육체계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센터',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를 구성할 '문화중심도시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수송본담율과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광주시단체협)가 광주시와 함께 최근 4개월동안 '민·관합동워크숍'을 통해 제안한 정책·사업 아이디어들이다.

시민단체들과 시는 지난 7월 기획회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 지난 9월부터 교육·청소년, 사회복지, 도시·환경, 여성·다문화,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6개 분과별 모임을 개최, 의견을 나눴다.

1일 상무지구 NGO센터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제안된 정책 및 사업은 모두 15건.

사회복지 분과에서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증액과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다양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성인 지적 장애인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재활사업 설치 등이 제안됐다.

또 도시·환경 분과는 ▲신규 주택건설해 녹지 조성 의무 부담을 단독주택까지 확대 ▲풀뿌리

공동체운동 활성화 지원 강화 등을 내놓았다.

여성·다문화 분과에서는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 사업 통합적 연계망 구축, 산업경제 분과에서는 ▲광주시 공공임대 주택공급 목표 제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와 주거공동체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문화·관광 분과는 민·관의 협업체트워크 강화 및 광주시의 정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광주시는 이들 제안을 적극 검토해 내년 시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시는 이들 안건을 문서화해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안건의 문서화는 '민·관합동워크숍'이 지난 2002년부터 7년째 계속되고 있으나, 본래 취지인 시민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시정 반영 등에는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협약이나 협정을 통해 정책 반영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영삼(40) 사무처장은 "민·관합동워크숍은 광주에만 있는 좋은 제도"라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가 시민단체와 나눈 의견 및 제시된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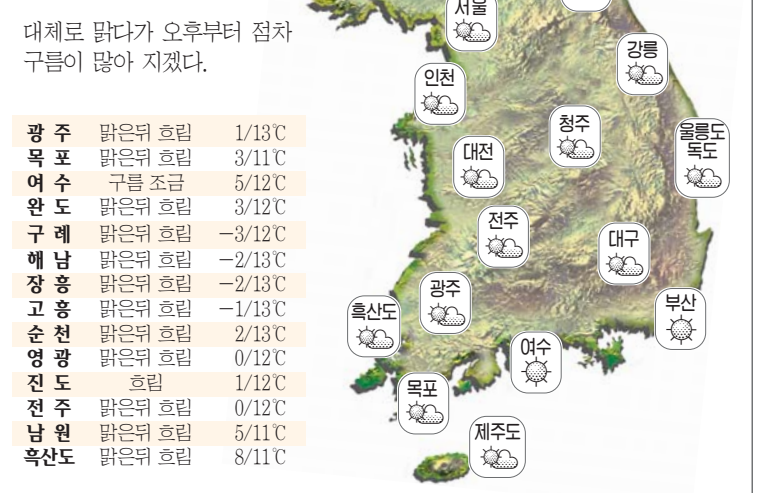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3분 해질 17시 20분 달출 17시 04분 달침 07시 12분

한낮에는 포근해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 지겠다.



구분	지역	기온
광주	맑은뒤 흐림	1/13℃
목포	맑은뒤 흐림	3/11℃
여수	구름 조금	5/12℃
완도	맑은뒤 흐림	3/12℃
구례	맑은뒤 흐림	-3/12℃
예남	맑은뒤 흐림	-2/13℃
장흥	맑은뒤 흐림	-2/13℃
고흥	맑은뒤 흐림	-1/13℃
순천	맑은뒤 흐림	2/13℃
영광	맑은뒤 흐림	0/12℃
진도	흐림	1/12℃
전주	맑은뒤 흐림	0/12℃
남원	맑은뒤 흐림	5/11℃
옥산도	맑은뒤 흐림	8/11℃

구분	종형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구분	종형	파고	일출	일몰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목포 01:24	06:4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4:15	19:3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여수 09:00	02: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21:01	15:0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4/10	1/13	4/19	1/11	1/13	2/14

광주 교육 만족도 높아졌다

전년대비 11점 상승

광주지역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의 '광주교육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에 의뢰해 학부모와 학생, 교장, 교사 등 모두 9천400명을 대상으로 광주교육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평균 67.99점으로 지난해 56.99점에 비해 11점이나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 지난 2007년 조사한 결과(54.93점)보다는 무려 13.06점이 높아졌다.

교육청은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대입수능 5년 연속 1위 등 '실력 광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75개 학교를 선정, 학생 3천507명과 학부모 2천869명, 교사 1천901명, 교장, 교감 등 관리자 839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8일간 실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고교·유치원 등

수업료·입학금 동결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 등의 수업료, 입학금을 동결했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수업료(분기별)는 시지역 평준화 지역이 28만8천원, 도서벽지 15만9천원 등이며 유치원은 6만8천400원에서 3만3천600원까지다.

또 지금까지 징수해 왔던 유치원 입학금(3천800원)도 내년부터 면제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축제

객실료 110,000 리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주)골프세상에서 당신만을 위한 클럽을 만나보십시오

골프세상 상무점 11월 5일 오픈 성업중

062-385-0689

만독무학 마스터스팀 일찌기 등록 및 은퇴비 70% 절감

만독무학 일찌비 50~70% 정부 무상지원